

## 安全點檢 現場을 찾아서

### <企劃調查課>

지난 8월 16일 상오 10시 30분, 中區 明洞 1街 7番地 1號에 자리잡고 있는 建設「빌딩」(建物主 權태홍)에 本協會 安全點檢員들이 들어섰다.

延建坪 2,776坪에 地下 2층, 地上 16층인 이 「매머드」 建物の 點檢을 위해 本協會에서는 4명이 一個組인 點檢班에 2名の 點檢員을 增員 配置했다.

회색 작업복으로 통일된 이들 點檢員의 손과 어깨에는 感知器 「테스터」를 비롯한 「폴리·테스터」·檢電器·「피터드·게이지」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각종 器機가 들려 있었다.

매마침 실시된 民防空訓練이 끝난 직후인지라 入口에는 地下室에 待避했던 人波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混雜을 이루고 있었다.

구리빛이 감도는 協會의 點檢員들이 入口에 들어서자 正門 守衛로부터 연락이 된 듯 建物管理責任者 禹誠元 理事가 나오면서 이들을 반가이 맞아들였다.

이어 마중을 나온 防火管理責任者 金孝守 總務課長의 安內를 받아 11층에 位置한 管理事務室에 들어가 자리에 正座했다.

“安全點檢 通知書를 받으셨습니까?”

자리에 正座한 點檢員으로부터 點檢通知書 交付 與否가 確認했으며 이어 金과장으로부터 “來訪을 환영한다”는 간단한 人事말이 있었다.

잠시 동안 點檢員과 金과장 사이에는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의 立法趣旨와 「協會」設立 동기에 대한 對話가 오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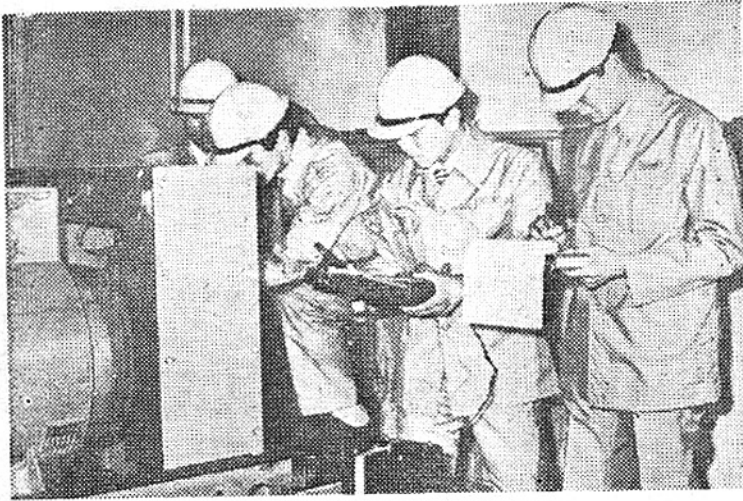
또한 安全點檢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保險會社가 거두어 들인 保險料의 還元, 그 때문에 安全點檢을 無料로 한다는 점 등 點檢員의 說得과 理解가 交又됐다.

약 10여분에 걸친 對話가 끝나자 點檢員들은 點檢에 필요한 「建築設計圖面」·「電氣設計圖面」·「機械設備圖面」·「消火設備圖面」등 4개 分野에 대한 資料 제시를 의뢰하고 點檢業務遂行에 들어갔다.

點檢員들로부터 建物概要에 대한 질문이 계속됐다.

“防火管理責任者는 資格證만 있는 분입니까?” “自衛消防隊가 編成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形式으로 되어 있습니까?” “自體 消防練習은 月 몇번이나 實施하고 있습니까?” “休日の 防火管理는 어떠한 式으로 되어 있습니까?”라는 등 綜合의이고도 세밀한 點檢員의 질문과 이에 대한 答辯이 오고 갔다.

이어 對話 중간에 제출한 圖面에 대한 檢査가 시작되어 設計圖面에 대한 「체크」



와 設備 현황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時間이 흘렀다.

精密檢査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10시 58분, 電氣·建築·機械·化學 등 4個 分野로 나뉜 이들 點檢員은 자기 담당자의 案内를 받아 精密點檢을 始作한 것이다.

電氣담당 點檢員 2名은 地下 2층에 설치된 試驗裝置室에 내려가 1층·2층·3층등 층별 電源과 契約用量·設備用量 등을 확인했으며 또 自·手動 警報器 設備에 대한 「체크」에 들어가 地下 2층으로부터 地上 16층에 대한 作動 與否를 확인했다.

1명은 試驗裝置室에 대기, 각층에서 측정하는 警報器의 感知 與否를 확인하고 1명은 각 층별 房別 경보기를 하나 하나 측정했다.

각 층별을 點檢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무려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대부분의 事務室이 貸貸되어 他人이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취지를 설명해야만 했고 어떤 房은 문이 잠겨 아예 확인을 할 수 없는가 하면 어떤 房에서는 아예 點檢을 외면해 버리는 例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建築點檢員은 圖面에 나타난 設計 및 建築施工 여부와 防火區劃·防火門·內裝·간막이·天井 등 전반적인 建物構造, 그리고 避難施設 등을 확인했으며, 防火門의 경우 位置·設置·構造·幅·높이 등을 「체크」했다.

특히 防火門 構造에서는 ① 種類, ② 周圍構造, ③ 隨時閉鎖, ④ 自動閉鎖 裝置, ⑤ 自動閉鎖 裝置 機械 등을 확인했다.

반면 機械點檢員은 消火栓 設備를 증점적으로 「체크」 貯水槽의 施設基準·「펌프」의 動力 및 配電하는 電線路, 屋·內外의 消火栓 效能, 「스프링클러」 放水試驗成績 등을 확인했다.

또한 化工點檢員은 제반 火氣取扱 關係를 「체크」, 燃料保管狀態, 消火器, 排氣施設, 危險物施設, 冷燬房施設, 高壓 가스設備 등 각종 化學成分 및 그 施設 狀態를 點檢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 點檢員의 精密檢査는 하오 3시 30분에야 끝이났다.

각 分野別로 분산됐던 點檢員이 管理事務室에 다시 모인 시간은 3시 32분. 자리에 正座한 이들은 檢査의 피로도 잊은 채 자기 실시한 點檢內容을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자기 整理에 들어 갔다.

잠시 이같은 整理가 끝난 후 管理者側의 요청에 의해 綜合的인 시정책과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으며 이러한 點檢員의 綜合강령은 管理者를 당혹케 했고 그는 또 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자세한 點檢內容은 10일 이내에 建物主에게 통고해 줄 것을 約束하고 자리를 물러 나오는 點檢員의 표정에는 喜悅이 감돌았다.

“차라도 한 잔 들고 가라”는 管理者側의 勸誘를 뿌리치고 일어난 이들 點檢員. 이들에게는 被點檢者의 업무에 방해나 지장을 초래 시키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使命이 있기 때문이다.

火災없는 밝은 社會建設.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 온 국민은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 것인가?

點檢員은 이를 위해 일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주어진 使命이기도 하다.

이러한 使命은 그 순간 掩襲해오는 피로조차도 없게 했다.

그 이름 安全點檢員.

歸社길 點檢車에 몸을 기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이들에게는 또 來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